



第4次 아시아 獸醫師會聯盟 總會 및 學術大會 參席報告

— 4TH CONGRESS OF FEDERATION OF ASIAN VETERINARY ASSOCIATIONS —
(Nov. 25~27, 1984 TAIPEI)

申光淳*

1978년 필리핀의 마니라에서 창립총회가 개최된 이래 1980년의 日本 東京大會, 1982년의 우리나라 서울에서의 제3차 대회에 이어 금반 제4차 대회가 자유중국(대만)의 수도 台北市에 소재하는 HOWARD PLAZA HOTEL (福華大飯店)에서 3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다.

본회를 대표하여 全東龍 회장을 비롯한 많은 임원진과 일반회원이 무려 57명이나 참가하여 과거 어느 대회보다 큰 규모의 대표단이 파견되었으며 수의분야 국제회의로는 사상 최고의 참석인원이었다.

본 대회의 성격은 익히 알려진바와 같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에서의 수의학의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의체 (A union to promote veterinary cooperation in Asia and Oceania)로서의 역할인 바, 참석자의 한사람으로서 여러 회원들에게 대회내용을 소개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저 보고하는 바이다.

1. FAVA 第7次 理事会

1984년 11월 25일(일)부터 27일(화)까지 3일간의 대회행사중 첫날인 11월25일 오후 1시 30분에서 5시까지 계속된 제7차 상임이사회가 대회장소와 같은 Howard plaza Hotel에서 각 회원국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全東龍 회장, 부회장인 본인과 金知仁 부회장이 참석하였으며, FAVA

집행부인 본 이사회 부회장으로 계시는 尹快炳 (본회 명예회장) 박사 그리고 금반 제4차 FAVA 총회의 부회장인 李昌九 박사(한국 바이엘화학 연구소장) 또한 창립멤버인 李元暢 박사(건국대 교수) 등 총 6명의 한국인이 참가하였다.

이사회는 회의순서에 따라 회장인 일본의 椿精一 (Dr. Seiichi Tsubaki) 박사의 개회 인사가 있었으며, 이어서 금반 총회 회장인 자유중국의 傅祖慧 (Dr. Tsu-Huei Fuh) 박사의 환영사가 간단히 있었다. 다음 FAVA 사무국장인 필리핀의 Dr. Topacio의 회의 진행으로 참석 각국 대표자의 자기 소개 순서로서 특히 처음 공식대표로 참가한 나라들의 인사가 있었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 全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Malaysia의 Dr. Noordin 회장, Indonesia의 Dr. Soedjasmiran 회장, Australia의 Dr. Evan-Jones 회장(불참)을 대리하여 Dr. Ross (PR Officer)의 인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다음 필리핀대표가 사정으로 대신 참석하였고, New Zealand는 대표를 파견하지 않았다는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었다.

의제순서에 따라 재무국장인 Malaysia의 Dr. Mahmood의 결산보고와 감사인 자유중국의 劉榮標 박사(신병으로 불참)를 대리하여 자유중국 대표가 양해있기를 바란다는 발언이 있어 그대로 받아 들이기로 하였다.

다음 Topacio 사무국장으로부터 새 회원국으로 가입 신청한 태국, 싱가포르 및 홍콩의 승인을

* 本會副會長, 서울大 獸醫大教授

정식안건으로 제출하여 본회 정관과 부칙에 따라 논의한바 태국과 싱가포르 두나라는 가입 승인하기로 결정하고 홍콩은 차기 이사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로서 FAVA회원국가는 모두 10개국인 셈이다.

다음 순서로서 찬조회원으로 현 7개회사 이외에 새로히 호주의 Livestock Services International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다음 의제로 FAVA마아크 결정안이 제기되어 그간 수차 토의한 내용이니 본안(제 4차 FAVA 마아크의 가운데 우형 내용)을 받기로 전원 찬성 확정하였다.

다음 FAVA의 활성화 방안과 재정확보에 대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많은 토의가 있었으며 차기 이사회까지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정관 및 부칙에 반영키로 하였다.

다음은 차기 이사회 건으로서 호주와 일본이 주관하여 1985년 10월경에 Tokyo에서 개최키로 하였으며, 제 5차 FAVA총회는 Malaysia가 주관하여 2년후인 1986년에 대회를 열기로 결정하였으며 임원으로는 대회장에 Dr. Mohd. Noordin (Malaysia), 부회장에 Dr. I. Barotodi (Indonesia), Dr. G. Ross (Australia), 사무국장 및 재무국장도 Malaysia에서 맡기로 하였다.

끝으로 이번 대회장인 자유중국의 Dr. Fuh의 본 대회 소개순서로서 약 800명의 참가자와 약 100명의 동반자가 참여하여 최대행사를 치르게 된데 대한 감사의 발언을 끝으로 이사회를 모두 마쳤다.

2. FAVA 第 4次 總會

1984년 11월 26일(월) 이틀째 맞는 대회일정으로 오전 9시부터 福華廳에서 총회행사인 개회식이 있었다.

단상에는 각국을 대표한 수의사회장과 이번대회 회장단 그리고 내빈이 배석하고 참가회원 약 800명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한 개회식이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먼저 대회장인 Dr. Fuh의 환영사가 있었고 이어 귀빈축사로서 中華民國 行政院 國家科學委員

會 主任委員(위원장)인 陳履安(Dr. L. A. Chen) 박사의 치사와 국제수역사무국(OIE) 중화민국 상임대표인 李崇道(Dr. Robert T. C. Lee) 박사(前 國立中興大學 總長)의 축사가 있었다.

다음은 FAVA회장인 일본의 椿精一(Dr. Seiichi Tsubaki) 박사의 인사와 사무국장인 Dr. Teodulo M. Topacio, Jr의 업무보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다음 안건으로 제 5차 FAVA 개최국(Malaysia)에 대한 승인이 있었고, 이번엔 처음 공식대표를 파견한 호주수의사들의 활동 현황보고가 있었다.

다음 순서로 FAVA찬조회원에 대한 감사패, 증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바이엘화학과 中央캐미칼이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 밖에도 FAVA발전에 많은 노력과 정력을 쏟은바 있고 국립대만대학 교수를 역임하신바 있으며 현재 감사로 계시는 劉榮標박사에게 그간의 공로와 은퇴를 기리는 뜻에서 공로패가 별도로 증정되었다.

이상으로 개회식 행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특강순서로 들어 갔다.

첫번째 논제는 국립대만대학 축산학과 교수인 Dr. Jen-Hsou Lin(林박사)의 獸醫學에서의 鍼術의 適用(Application of Acupuncture in Veterinary Medicine)이란 내용을 발표하였는 바, 그 요지를 간추리면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는 중국 의술인 침술이 금세기에 들어와 과학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10년 동안 의학적으로 현저한 발전을 가져오기 있어 수의학적인 적용에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응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기하였다. 즉 인간과 동물에 대한 침술의 역사, 중국의학의 기초적 이론, 수의학에서의 침술, 미래의 침술과 침술의 기전 등 광범위한 면에 걸친 내용이 발표되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강에 이어 다른 두 장소에서 침술의 실습이 있었는데, 점심시간을 이용 돼지와 소에 대한 침술로서 응급처치 요령과 생식기능 이상(불임 등)에 대한 침술 실연이 있어 뜻있는 임상수의사들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또 다른 장

소인 대만대학에서는 개에 대한 전기침술마취에 대한 실습이 동시에 진행되어 현재 임상분야에서 실제 침술이 응용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기울여 소 침쟁이의 전통을 과학적으로 현실화 할 필요가 있으며, 수의임상 분야에서 활성화 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느꼈다.

두번째 특강으로 New York에서 Animal Medical Center에 근무하는 Dr. Si-Kwang Liu (劉박사)의 心筋疾患 (cardiomyopathies)에 관한 강의로서 특히 고양이에 있어서의 임상적, 병리학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가장 기초적인 이론에서 부터 기능적인 장애와 임상병리적 실제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많은 슬라이드를 보여 주면서 열강하는 내용을 감명있게 들었다.

이상으로 오전중의 행사를 전부 마치고 참석자들은 기리기리 준비한 중국식 점심을 들고 환담을 나누며 휴식을 취하였다.

3. 學術發表會

관심의 대상인 학술발표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두 곳으로 나누어져 동시에 개최되었는 바 총 연제수는 49제목으로 주최국인 자유중국이 23연제, 일본이 18연제, 한국이 6연제, 말레이시아가 2연제이며 기타 국가들은 한 연제도 발표되지 않았다. 과거의 동경이나 서울에서 보다 연제수가 적은 편이었으며, 발표시간도 너무 여유가 없는 진행이며, 동시통역 등 국제행사의 어려운 점이 그대로 나타난 감을 느꼈다.

제 1 발표장에서는 주로 소와 돼지 및 가금질 병관계로 25연제가 발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가축위생연구소의 강영배 연구관 사정으로 (박영호 연구관이 대신 발표)이 한국의 진드기 질병에 대한 내용과, 박영호 연구관의 유방염의 병원균 분리와 유두살균제의 효과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마침 이 두 연제를 포함한 Session 2의 5개 연제에 대하여 본인이 좌장을 맡

아 보게 되어 더욱 의미있는 발표가 되었다. 또한 Session 5에서 김재홍 연구관이 한국에서의 ILT의 발생과 예방에 관한 소개가 있었다.

제 2 발표장에서는 주로 소동물 질병과 기타 분야 연제로서 24연제가 발표되었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수의사회장이며 본회 부회장인 金知仁씨가 한국의 개 파보바이러스성 장염과 그 임상요법에 관한 내용과 한국마사회의 장영대씨의 한방에서의 말 고창증에 관한 문헌적 고찰이란 내용으로 소개되었으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韓壽南 박사의 한국의 독사에 관한 역학적 조사란 내용의 발표가 각각 발표되었다.

또한 한수남 교수는 본 발표장의 Session 2의 5연제에 대한 발표에서 부좌장을 맡아 수고하였다. 특히 본 발표장에서는 침술로 이유후 10일경에 돼지의 발정을 유발시킨 실험결과 또는 의과적 마취에서 전기침술의 적용에 관한 연구 등 흥미를 이끌 만한 내용의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

4. 見學 및 觀光

대회 마지막 행사날인 11월 27일(화)에는 주 최측이 미리 준비한 스케줄에 따라 오전 8시에 참가 희망자들 만이 모여 뺄스편으로 견학 길에 올랐다. 여기에는 우리 대표단중 많은 회원은 별도 계획에 따라 떠났고, 10여명의 희망회원만 이 동참하게 되었다.

참가자 일행은 대북에서 남쪽으로 약 2시간 여의 거리에 함께 위치한 台灣養豚研究所 (Pig Research Institute)와 台灣製糖協會에서 운영하는 動物産業研究所 (Animal Industry Research Institute)를 견학하였다.

이 두 연구소는 대만의 자랑거리로서 많은 수의 축산 전문가들에게는 익히 알려진 연구소로서 본인도 이미 두번째 가는 곳이었다. 그러나 갈 때 마다 새삼 우리나라에도 이와같은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 느껴졌다.

물론 대만의 축산은 돼지가 주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들의 특성인 가장 실용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직접 양돈농가와 연결되며

국가의 축산정책의 산 실험 연구기관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여겨졌다. 특히 동물산업연구소(1954년 발족)에서는 가축의 증식, 품종개량, 사료과학의 연구, 가축질병 관리, 축산물의 가공, 축산물의 유통경제, 축산폐기물 및 부산물의 이용 및 처리, 수의과학의 응용과 활용방안 연구 그리고 수의사 및 축산기술인들의 기술교육, 축산물, 곡류 및 어패류의 생산지도, 국제적 협력사업 등 생산에서부터 경영관리 및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역할을 하는 축산센터의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었다.

간단히 이 기관의 규모를 알기 위하여 생산분야를 볼것 같으면 돼지가 주로서 연간 평균 47,000두를 생산하여 북부대만지역에 공급하며, 품종개량돈 약 10,000두를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비육소 및 유우는 각 500두 정도 밖에 없었다. 이 밖에 사료공장도 있었으며, 약 80헥타의 사료생산 및 초지가 있으며 14헥타의 양어장도 갖추어져 있는 축산의 순환도를 잘 연결시킨 감이 들었다.

다음 방문 예정지는 Cyanamid Taiwan Corporation이었으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곧바로 이곳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하며, 1984년 10월에 설립 개원한 小人國(Windows on China)을 방문하였다. 먼저 그곳 식당에서 준비된 도시락으로 간단히 점심을 들고 곧바로 경내 구경에 들어 갔다.

이곳은 그들의 소개를 그대로 빌면 一眼看盡五千年華夏文物 半日遨遊十萬里大好河山이란 표현대로 중국의 5,000년 전통문화와 역사, 예술은 물론 현대의 사회건설에 이르기까지의 종합된 내용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일일히 원형을 그대로 축소시켜 진열식으로 펼쳐져 전시되고 있는 상설 전시장이라 하겠다 (시설규모 32,000평).

경내를 둘러보는 동안 총 68개 전시물 중 근대의 것으로 國父(孫中山先生)紀念館, 中正(蔣總統)紀念館이 눈에 띄었으며, 고대의 것으로

는 진시황 때의 阿房宮(BC. 212년), 明나라의 午門 및 紫禁城三大殿(1407년), 淸나라의 林家花園(1893년) 등 우리들도 들은바 있는 유명한 문화유산들이 그대로 축소되어 마치 실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즉 중국의 모든 문물을 난장이 나라에 진열한 격으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는 물론 후세에 기리 중국의 문화전통을 전수시켜 산 교육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의의있는 작품장이었다.

5. 歡送파아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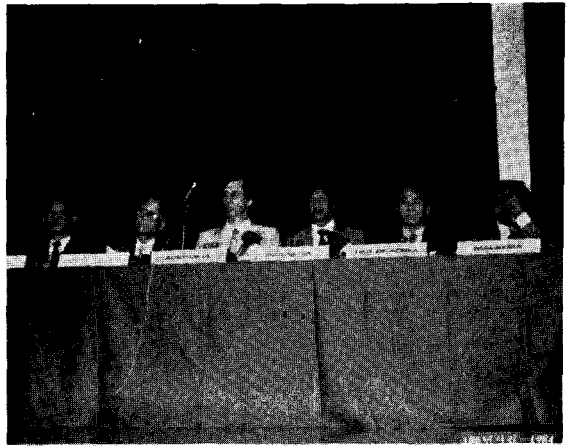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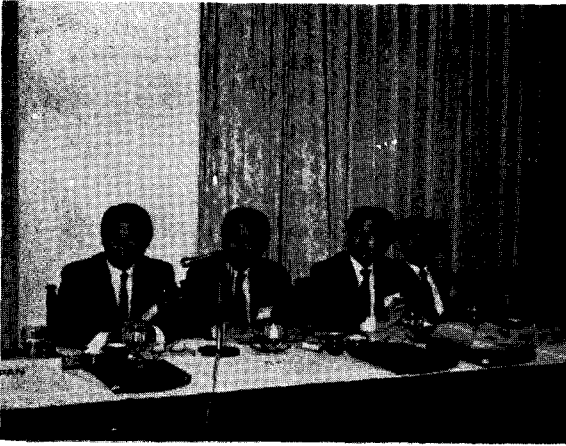
이번 대회행사중 공식연회는 첫날의 환영리셉션과 마지막날인 송별연과 쇼구경 뿐이었다. 두 행사 모두 같은 장소인 Howard Plaza Hotel의 福華廳에서 계속 열렸는바, 환영연은 장소가 비좁고 지하 2층이라 출입통로가 좁아 대부분의 많은 참석자들이 들어 갈수 없을 정도로 분비는 파아티로 본 행사에 처음부터 먹칠을 하는 대실수를 한 셈이었다. 많은 외국참석 대표들은 불만을 토로하였으며 그 통에 바로 2년전 한국에서의 훌륭한 파아티가 한번 더 칭찬을 받는 어부지 덕을 본 셈이었다.

따라서 환송파아티도 회의를 느끼며 참석할 정도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날은 좀 여유가 있어 먼저 중국식으로 등근테이블에 앉아 저녁 음식을 맛있게 들수 있었다.

식사후 중국문화대학 무용과 학생들이 선보이는 中華民族無蹈이 공연되었다. 羽扇舞(Feather Fan Dance), 村姑與牧童一小放牛(The Fair Lady and the Cowboy)등 총 7종의 무용이 약 1시간에 걸쳐 공연되어 즐거운 한 때를 함께 하였다.

다음은 각국 대표가 단상에 올라가 다음 개최국인 Malaysia에서 다시 맞날 것을 아쉬워 하면서 피나레를 장식하는 행사가 있었으며, 서로간의 선물교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호랑이 그림이 담긴 대형부채를 각국 대표들에게 주어 만당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폐회를 선언하니 각국의 참가대표들은 서로 악수로 석별의 정을 아쉬워하며 각나라 별로 헤어져 숙소로 돌아가니 때는 늦은 밤시간이었다. 끝으로 이번 제 4 차 FAVA 대회에 참가한 한국측 대표단의 명단을 소개(무순)하면서 참석보고를 맺는다.

참석자 명단(무순)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전동용	(대한수의사회장)	송영길	(영등포가축병원)
정보남	(삼성가축병원)	조규장	(제일동물병원)
이순우	(대한수의사회 사무처장)	안남신	(대한수의사회)
주영환	(인천시 수의사회)	부석찬	(신성가축병원)
정본암	(여천동물병원)	곽남순	(진도동물병원)
임정택	(전남대농대교수)	신광순	(서울대수의대교수)
한수남	(서울대수의대교수)	박용호	(가축위생연구소)
김재홍	(가축위생연구소)	장영대	(한국마사회)
김정남	(세종동물병원장)	이창구	(한국바이오테크놀로지)
황대우	(대양동물약품)	김택화	(성동가축병원장)

손진호	(가나안가축병원장)	이각모	(주) 동방 사장
류성방	(류 가축병원장)	정진석	(기장 가축병원장)
윤쾌병	(한국야쿠르트)	이원창	(건국대)
임정수	(다나화학)	정진홍	(협신식품 사장)
박종영	(중앙케미칼 전무이사)	조준행	(청운동물 병원장)
이형우	(부산시 수의사회장)	이익생	(한일동물 병원장)
박진일	(부산우유 팔송진료소)	김우영	(충남수의사 회장)
오영유	(중앙동물 병원장)	김두석	(김두석 동물병원장)
최병순	(삼우화학 상무)	박병한	(협동가축 병원장)
김정훈	(서울가축 병원장)	송재선	(경남수의사 회장)
이천용	(충남가축위생시험소)	김진구	(복십지수의약품 상무)
강진동	(강 수의과 병원장)	김이섭	(양평가축 병원장)
김지인	(경기도수의사회장)	김태희	(협동 가축병원)
김선일	(금촌 가축병원)	김현석	(고양 가축병원)
강두완	(강두완 동물병원)	윤동식	(윤동식 동물병원)
박승도	(고려동물병원)	김오섭	(해태유업 기획실장)
이봉수	(반월 종합동물 병원)	이강남	(이 수의과 병원장)
손충수	(서울 동물병원)	김은영	(창일목장)